

한국 문화와 코로나19

발표 개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사불란(一絲不亂)' 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잦은 회식을 하거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확산되어 대면활동의 빈도가 줄어들고 그 강도(強度)도 약해질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만든다. 그동안 부모는 일과 회식 등 공적인 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적었고, 또 자녀들도 공부 등으로 바빠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 변화를 통해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져 가족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내재된 갈등이 분출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가훈으로 정한 가정이 많듯이 가족 간의 강한 결속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가족끼리 함께 할 유희거리나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도 별로 하지 않는다. 물론 '부부일심동체(夫婦一心同體)'이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또한 가족이기도 하다.

가족 간의 나누는 말이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인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대화가 일방적인 설명이나 훈계와 같은 독백으로 쉽게 흐르는 데는 우리의 문화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우리 문화는 '가족동일체' 의식이 강하다. 가족은 동일(同一)하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所望)'에 불과할 뿐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것을 구태여 표현하면 유대를 해치고 그나마 유지되던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참고 사는 것일 뿐이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상대가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와 '하나'라든지 '같다'고 여긴다면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부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부부일심동체' 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문화는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이 강하다. 이런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자녀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부모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름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각하고 억제할 수 없는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니면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머리가 더 크기 전에'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억누르려 한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되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독립된 인격체라 해도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수직적이면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

다. 단지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우리 가족문화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와 자녀는 다른 세대(世代)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또 달라야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어느 가족이나 발전은 없다. 발전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때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어느 조직보다 흥허물이 없는 사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이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관계이다. 다른 조직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은 싫어도 함께 살아야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싫다고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가정은 그래서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맞본 천국과 지옥은 가족 외의 다른 관계에도 전이(轉移)가 된다.

코로나19는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늘 부족해서 아쉬웠던 시간을 선물해주었다. 지금까지 가족과 나눈 대화가 진정한 대화인지 아니면 독백에 불과했는지를 돌아보자. 만약 독백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노력해자. 코로나19로 뜻밖에 주어진 시간이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로 가는 밑거름이 된다면 그나마 큰 보상이 될 수 있다.